

## 2017년 2월 12일 “찾아오신 예수님(20)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요 10:22-39)

## &lt;도입&gt;

어떤 젊은이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한 현인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에 찬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에겐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돌벽으로 막아 두었으니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는가?’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망치로 깨고 꺼내면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맞다. 그러면 하나 더 묻자. 여기 있는 이 닭의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치로 껍질을 깨는 줄 알지. 물론 망치로 껍질을 깰 수는 있다.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 없단다’

금괴를 얻으려면 망치로 깨야 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28 절과 34-35 절입니다(읽음).

지난 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말씀에 의하여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을 주어 공유하시고, 그 신성은 다시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도록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신적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있다는 복음이 공명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 10 장은 예수님의 정체를 9 장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고, 랍비로서 자격이 있는 자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33 절).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앞에서 있는 청년 예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부정은 이해할 만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2000 년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매우 격렬한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믿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또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나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가를 정직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는 길은 성경의 진술을 읽고 묵상하는 길 외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두가지 단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27-28 절**, 예수님이 아시는 자들, 즉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어느 누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학기술로 가능합니다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에 전적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그런 사고는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생을 주시는 길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소개 하십니다. 34-35 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 82:6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이런 뜻이라면 영어 성경에 gods 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 즉 영생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라고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성이 어떤 존재에 거하면 그것은 신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세계를 엄연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평행선을 긋고 존재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내재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주에 대해 깨어지고 무뎠던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이것을 거듭남). 그리고 내재하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의 죄성을 이기고 사랑과 인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줄여 말하면 종교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슬람은 알라라는 타자인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힌두교와 불교는 신성이 사물 안에 존재하는 내재성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 1:1 에서부터 선포한 그리스도는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말씀으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품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신적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 중의 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성과 인성

그러면 인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의 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성은 사라지고 신성만 남게 되나요? 신성과 인성을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성에 대하여 태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 본연의 속성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성의 성경적 뼈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의식에서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하나님은 없고 인간 중심적으로만 전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성이란 착하고, 성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신성인하면 최고의 인성이라고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성의 본질인 하나님 형상이 인정되지 않고 무시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논조가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과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지고, 사랑받아야 점점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탁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게 마음을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자라가도록 애써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의 인성을 품으시고, 우리 인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을 드러내는 축복의 여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될수록 신성과 인성은 풍성하여 집니다.

예시로서, 신성은 해이고 인성은 달입니다. 해는 빛을 발하지만, 달은 빛을 반사합니다. 해는 늘 일정한 빛을 충만하게 비춥니다. 그러나 달은 위치에 따라 때로는 보름달로 또 반달로 반사하고 또한 빛을 반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전혀 반사하지 못했던 수준으로부터 보름달로 반사하는 수준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고, 빛을 반사하는 존재는 다르지만 똑 같은 빛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신성과 인성은 공유관계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삶의 진수는 주신 영생 안에서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얻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나신다는 말은,

- ① 그분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
- ② 또한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늘 화목(하나됨, 하늘과 땅의 통일)을 향하여 과정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 ③ 이것을 위해서 관계성이 빠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성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는 가는 성경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사항입니다.

#### <맺음>

영생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인 인성 속에서 당신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